

2021 대림



사랑하는 자매들에게

“대림”이라는 단어는 “오심”을 뜻하는 라틴어 *adventus*에서 유래합니다. 대림은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시기인 대림은 네 주간으로 한정되지만, 진정한 대림에는 시간의 한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매년과 매일의 일이고, 영혼의 자세입니다.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에는 특히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은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과 실망, 피로와 짧은 시각 앞에서, 희망은 매우 자극이 되는 가치입니다. 우리 모두는 희망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희망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세대의 신앙인들에게 활기를 주었던 희망은, 특히 대림 시기마다 우리에게 마주 옵니다.

예수님은 인류 전체와 우리 각자에게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희망입니다. 그분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상징들을 통해서 매일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성사들을 통해서, 가난한 이들을 통해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매일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은 낮은 바닥에서, 거리에서, 길에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대림 제1주일의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에 대해 말하고, 대림 시기의 위대한 희망의 인물들을 보여 줍니다.

그 첫째는 주님의 선구자인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는 참회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결과에 신경을 쓰지 않는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도록 그의 희망으로 길을 고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대림의 희망의 위대한 모델은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요셉은 갈릴래아의 나자렛 출신이고 다윗 집안의 후손으로서(루카 2,4) 마리아와 약혼했습니다. 그는 올바른 사람이고 희망의 사람으로서, 꿈에서 자신에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였고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에 예수라고 불릴 아기가 태어나리라는 것을 말해 준 천사가 알려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느님을

깊이 신뢰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역할이 어려운 것이라 해도 언제나 하느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마리아는 많은 영예로운 호칭들을 지니고 있지만, “희망의 어머니”라는 호칭은 특별합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별들은 성인으로 살았던 이들입니다. 그들은 희망의 빛들입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빛이십니다. 하지만 그분께 이르기 위하여 우리에게 더 가까운 빛들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빛으로 빛을 내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주는 이들이 그 빛들입니다. 성모님보다 더 우리에게 희망의 별이 될 수 있는 인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당신의 “예”로 세상의 문을 하느님께 열어 드렸습니다. 그분은 계약의 살아있는 성소가 되셨고, 하느님은 그 안에서 육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시고 우리 사이에 장막을 치셨습니다(참조. 요한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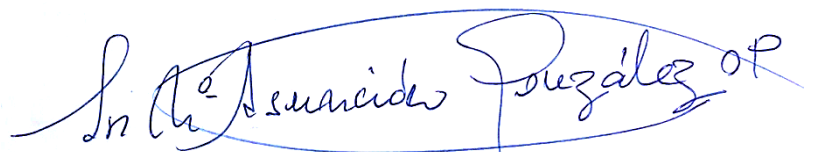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도록 초대되었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었던 것입니다.

이 거룩한 대림 시기에, 희망의 진정한 모델인 마리아와 요셉을 바라봅시다.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성탄 날 구유 앞에서,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이들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투신을 새롭게 합시다.

기쁜 대림과 성탄 되시기를 바랍니다.

Un fraternal abrazo y mi oración,



Sor Ma Asunción González, O.P.
Priora General